

부처·보살 등 주제별로 엮은 '佛典' 백과사전



경률이상
송성수 초역
오순호, 하혜정, 박연주 개역
동국대 역경원
각 2만 5천원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롯해 수많은 불법을 담고 있는 대장경. 막상 대장경을 공부하려 하면 그 방대한 양과 난해함에 손을 놓기 일수다.

동국대 역경원이 최근 발간한 <경률이상>은 이러한 대장경의 경(經)과 율(律)에서 요점을 각 주제별로 뽑아 출전을 표시하여 학습하는데 편리하게 엮은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이 책은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양나라 보창(寶唱) 스님이 무제(武帝)의 명을 받아 여러 불전을 주제별로 22부(部)로 나눠 50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불법 홍보에 앞장 선 양무제는 불전 편찬에서 <경률이상>의 중요성을 느낀 것이다.

여기에는 전생담(前生譚)이나 신비한 고사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類型)의 설화 782개가 담겨있다. 중국불교 최초의 유형(類書)로서, 주제어 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책은 대부분을 인간세계에 대한 소개로 할당했다. 제1 천부(天部)와 제2 지부(地部), 제3 불부(佛部)부터 제19 서인부(庶人部)까지 전체 50권 중 42권 분량이다. 이 중 인간세계도 수행자와 일반 불교도로 구분했다.

불교 수행자 중에는 부처(佛部), 부처의 종족(諸釋部), 보살(菩薩部)과 승려(僧部)를 배제했으며 특히 승부(僧部)의 분량을 많이 하여 출가 수행자의 특별

한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

나귀로 태어나야 할 처지에 놓인 제석이 삼보에 귀의하자 태 안에서 죽어 다시 본래 몸에 의탁한 일, 사리불과 목련이 신통력을 겨룬 일 등이 그것이다.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분류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세속 권력의 최상에 위치한 집단의 국왕과 그의 권속이다. 국왕이나 왕비, 또는 왕자나 공주 출신으로 불교에 귀의하여 수행자가 되거나, 아니면 불교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예화를 뽑아서 소개했다.

또 장자부(長者部), 우바새부(優婆塞部), 우바이부

중국 양나라 때 보창 스님 편찬

전생담, 비유고사 등 782개 설화 담아

인간세계·축생 등 다양한 불교계 설명

(優婆夷部), 외도선인부(外道仙人部), 범지부(梵志部) 등이 배제됐다. 외도 수행자를 비롯해 바라문 등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 집단으로 출가한 수행자과의 일화도 담았다.

후반부에는 귀신부, 축생부, 지옥부로 귀신 지옥을 비롯해 다양한 들짐승과 날짐승을 분류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불전 속에 등장하는 예화를 소개하였다. 이 중 축생부는 불전에서 행한 동물 분류와 동물에 대한 태도나 의미 부여를 알 수 있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자 꼬끼리 말 소 여우 이리 원숭이 고양이 쥐 기러기 비둘기 학 꿩 까마귀 용 뱀 거북 물고기 벌레



목아박물관 소장 지옥극락도. <경률이상>에는 불교 세계관의 수많은 설화를 주제별로 묶었다.

조개 등 온갖 축생들에 대한 설화와 지옥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들은 불교에도 뛰어난 문학성을 지닌 작품들이 많음을 짐작케 한다.

<경률이상>은 고전연구와 한역경전 유통 연구에도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경률이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전 중 상당수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 삼승명수경(三乘名數經), 천제석수계경(天帝釋受戒經), 과거탄금인경(過去彈琴人經), 절박나한경(折伏羅漢經), 선신경(善信經), 작

독수경(旃毒樹經), 중생미연삼계경(衆生未然三界經) 등이 그러한 경전들이다.

역주본은 1992년 동국대 역경원에서 송성수 선생의 초역본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오순호·하혜정·박연주 등 한문 번역 전문가들이 참여해 오역을 바로잡고 한글화했다.

한편, 고려 고종 30년(1243년) 목판에 새긴 <경률이상>은 보물 제1156호로도 지정돼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분단' 현실 밀도있게 그려

국경

이정 지음 | 책만드는집 | 1만 3천원



"기래요? 기림 리인철 기자라고 아시오?" 리인철? 뜻밖에도 내 이름이다. 하지만 낯설다. 두음법칙을 무시한 발음 때문이 아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북한 사람의 입에서 불려져서 그럴까? "저를 아세요?" / "선생이 리인철 기자?" / "그렇습니다만." / "아, 반갑습니다. 난 황철호라고 하오." 남한의 이인철 기자와 북한의 통전부 황철호 참사는 남북회담 취재 현장에서 만났다. 황 참사가 이 기자의 평양 방문을 도우면 서 둘의 우정이 익어간다.

15년 동안 북한 사람들을 취재해온 소설가 이정희의 분단소설, 남한 기자와 북한 관리의 우정과 고뇌를 그리고 있다. 그 동안의 분단문학이 전쟁, 이산가족, 탈북자, 간첩 등을 등장시키며 제한적이고 웅색한 남북간 주민들의 만남을 소재로 다뤘다면, <국경>은 남북 주인공이 평양과 중국에서 직접 만나는 현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저자의 생생한 체험이 바탕이 되고 있는 만큼 90년대 후반 이후의 남북 현실이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다. 남북문제에 해박한 작가의 지식과 경험의 소실 속에 잘 녹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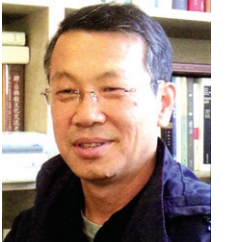
주인공 이인철 기자는 황철호 참사관의 탈북

군법사 출신 소설가

평양·중국 15년 취재기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향한다. 이인철의 1인칭 시점인 소설은 남북의 만남, 방북 과정, 북한 내부 사정, 탈북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까지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개한다. 탈북자 황철호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기자를 통해 문화재 밀매를 감행하게 되는데, 문화재는 신라금관으로까지 발전한다. 한편 이기자는 백두산 밑 땅굴에 사는 탈북자 정연화를 도와 그녀를 한국 땅으로 무사히 인도한다.

소설은 현재 남북 간에 일어날 만한 일들을 통찰력 있게 그려나가면서 남북 분단의 아픔을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현재형으로 전개해 나간다. 언론사에서 대북 관련 업무를 맡았던 그는 주인공 이인철처럼 1998년 8월 처음 북한 문화재 조사와 위해 방북했다. 현실의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주변 상황을 소설 속에서 현장감 있게 그리고 있는 <국경>은 탈북자나 이산가족, 간첩이 아닌 북한 주민을 본격적으로 작품 속에 등장시키며 남북 교류 협력시대 이후의 남북 현실을 밀도 높게 그리고 있다. 우리의 분단 현실은 이제 양쪽 모두 지쳐가고 있고, '분단'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서 멀어지고 있다. 무언가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경>이 '분단'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이정희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2~12/18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민, 만민	한지공헌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생앤파크스
4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발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걷지 마라	덕일	작은숲
8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존 카밧친	불광출판사
9	선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10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금강경과 일상 둘 아닌 하나...핵심 가르침 정리

선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지음 | 공경원 펴냄 | 1만 9천원



<선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은 경전 구절과 함께 108가지의 다양한 실생활의 실례를 들었다. 이를 통해 금강경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과 돌이아님을 보여준다.

이 책은 실생활을 통해 금강경의 내용을 풀어주는 일종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저자 김원수 씨는 지난 40여 년간 금강경을 수지독송해 왔을 뿐만 아니라, 스승 백성욱 박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도량을 세웠다. 그리고 자택마저 무료급식소로 내놓아 무주상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금강경의 구절이 도저히 해설되지 않을 때마다 금강경을 독송하며 "이런 경우에 스승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하는 의문을 되풀이 하는 기도를 하면서 난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

저자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가르침: 모든 세상의 현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공(空)의 가르침: 번뇌와 고통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 번뇌나 고통은 참이 아니고 착각임을 알자 △불이(不二)의 가르침: 내 번뇌가 착각임을 알게 될 때 나와 부처는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구족(具足)의 가르침: 내가 없으면 부처님과 같은 구족한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

저자 금강경 수지 독송 40년

대중들 위해 쉽게 내용 풀어

김 씨는 "이 가르침들은 금강경에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네 진리에 입각해 금강경을 해석할 때에만 비로소 금강경이 제대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실천 가능한 해석, 알기 쉬운 해석, 실생활에 응용하여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해설서를 쓰기 몇 해 전 자시(子時, 0시)에 일어나 금강경 7독을 49일간 3회 공부했다고 한다.

www.minjoksa.org

교재 01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

472쪽 | 25,000원

.....

대학승이신 성본스님의 금강경 강의!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중생심을 끊어버리고 타파하는 경전이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교재 02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624쪽 | 28,000원

.....

대강백이신 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의!

유마경은 출가 중심의 편협하고 왜곡된 불교를 철저하게 비판하여 대중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다.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헤엄치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민주사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 240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동합 053-02-109450 (매곡주. 윤재승)

왕초보 한문 박사 되다

김형중 지음 | 288쪽 | 12,000원

불교 한문 초보자를 위한 맞춤 도서

1. 최초의 불교 한문 공부 교재
2. 해석 방법과 문법 소개
3. 경전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소개함
4.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는 한문, 이제 글자로 보인다!